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의미*

—필자가 진행 중인 ‘아동독자의 읽기 발달 연구’를 중심으로—

임미성**

<차 례>

-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II. 읽기 발달 연구와 질적 연구
- III.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의미
- IV. 결론 및 제언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는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이 갖는 의미에 대한 탐색에 있다.¹⁾ 연구자는 읽기에 관여하는 세 가지 주된 요소인 독자, 텍스트, 맥락 중에서 ‘독자’ 요소에 주목하

* 이 논문은 한국독서학회·한국비평문학회 연합 학술발표대회(2010. 12. 1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원광대 김대희 교수님과 예리한 지적으로 논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전북대 박사 수료(sungeunm@hanmail.net)

1) 이 연구는 ‘연구에 대한 연구’ 즉 메타 연구의 특성을 지닌다. 단, 그간 이루어진 ‘읽기 발달’ 연구 전체에 대한 메타 분석이 아닌 특정한 연구에 대한 메타 연구이다.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고구술을 활용한 아동독자의 읽기 발달에 관한 질적 중단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전체 연구에서 갖는 의미, 읽기 발달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갖는 의미 등을 살핀 것이다. 본고가 연구과정을 상세히 밝히는 연구가 아닌 관계로 구체적인 연구과정은 권순희 외(2009), 임미성(2010)을 참고하기 바란다.

었다. 그 이유는 연구자가 가진 읽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독자가 글을 읽을 때 독자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어떤 독자는 능숙하게 읽는데, 어떤 독자는 미숙하게 읽는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읽기 능력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 ‘어떻게 하면 글을 능숙하게 읽고, 계속 흥미를 갖고 읽게 할 수 있을까?’, ‘어릴 때 책을 즐겁게 많이 읽던 아동들이 왜 성장해 감에 따라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등의 물음이다.

그간 읽기 연구와 읽기 교육 연구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성인 독자와 달리 아동독자²⁾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아동독자의 읽기 과정은 분명 성인 독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가장 뚜렷한 차이는 읽기 능력과 태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읽기 교육 연구 중에서도 ‘읽기 발달’ 연구는 아직 우리에게 흔치 않은 연구 영역이다. 발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 유아기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읽기 능력과 태도가 발달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영환(2007)은 독서(읽기) 발달은 독자가 시간의 경과 즉 성장하면서 독서할 때 필요한 사고의 구조와 기능이 분화되고 정밀화되며 통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독서 발달에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단계³⁾ 중 어느 한쪽의 견해가 아니라 독서할 때 사고의 발달 과정이 “개인에서 시작하여 사회로 나아가고, 다시 개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지가 대상에 대한 사고가 개인에게서 시작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사고는 사회로 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피아제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 다음 다시 개인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은 비고츠키

2) ‘아동독자’는 이지영(2010)의 개념으로 기존의 ‘학습독자’보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독자로서의 아동’, ‘아동인 독자’를 의미한다.

3) 대표적인 발달 심리학자인 피아제는 ‘발달’을 ‘여러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고 구조의 습득’으로 넓은 의미의 기억(memory in the wider sense)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인간의 발달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비고츠키의 경우도 언어 발달의 과정을 사회적인 말-자기중심적인 말-속내말의 순서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Herbert P. Ginsburg & Sylvia Oppen, 1988; James V. Wertsch 저, 1995; 최영환, 2007).

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주로 인지적 읽기에 해당하는 발달 개념이고, 연구자는 정의적 읽기 태도 또한 일정한 요소가 일정한 순서를 따라 정향성을 가지고 변화한다고 본다.

정옥년(2007)에 의하면, 독서는 독자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인데, 이때 구성되는 의미는 반드시 정의적 속성 즉 정서나 감정을 띠게 마련이라 하였다. 독서에 작용하거나, 독서 후 얻게 되는 ‘의미’는 인간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또한 이도영(2007)도 지금까지 읽기 교육이 지식, 사고력, 기능, 전략 등 인지적 영역 중심이었다고 말하면서, 인지적 읽기 교육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읽기를 즐기고 읽기의 가치를 알고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는지 의문시 된다고 하였다.

인지적 읽기 교육과 정의적 읽기 교육은 읽기 교육의 양 날개와 같다.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론하며 읽고, 창의적으로 확장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일과 자발적으로 즐겨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 읽기 교육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목표이다. 특히 아동독자의 경우는 인지적 읽기 능력과 정의적 읽기 태도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연구자의 근본적인 물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면, 근본적인 물음들의 요지는 ‘아동독자가 성장해 감에 따라 읽기 능력과 읽기 태도는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이다. 이 물음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 방법이 있다.

읽기 교육 또는 국어교육 관련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연구는 정현선(1998), 정재찬(2001), 이정숙(2002), 엄훈(2006, 2009), 정혜승(2006), 옥현진(2010) 등이 있다. 이들은 질적 연구의 가능성,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의 차이점, 인류학이나 현상학과 구별되는 국어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필요성, 국어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발전 방향을 다루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어과 교육에서 본격적인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적 연

4) Dewey, 1913 ; Rosenblatt, 1978을 정옥년(2007)에서 재인용.

구의 과학적 실증주의와는 달리 인간이해, 의미의 발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론을 기술함에 있어 당위적인 필요성과 목적은 말하면서도 질적 연구로 쓰인 국어교육 연구물을 들어 질적 연구의 의미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영국이나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한정된 학술지의 논문을 살펴 질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것이었다.

이에 본고는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는 읽기의 인지, 정의적 영역의 발달에 관한 질적 관찰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이 갖는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개괄이나 선언이 아닌 실제 질적 연구의 현장 텍스트를 활용하여 읽기 교육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현장 텍스트로는 연구자의 성찰일지, 학습자들의 사고 구술 및 기술의 전사내용, 읽기 면담 내용, 학부모의 반응이 드러난 글 등을 활용하였다.

II. 읽기 발달 연구와 질적 연구

1. 읽기 발달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의 탐색

연구에서 연구 방법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구를 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연구 문제라는 ‘내용’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형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인식의 문제, 세상을 보는 안목의 총체적 작용태이다.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려면 먼저 읽기 발달 연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읽기에 관여하는 요소들 중에서

읽기를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독자의 의미구성 행위’로 보는 구성주의 패러다임 이래로 ‘독자’의 위상은 높아져왔다. 특히 아동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독자의 발달에 따른 읽기 능력의 변화, 읽기 태도의 변화에 대한 기초 정보가 꼭 필요하다. 엄훈(2006)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 발달 연구를 함에 있어 우리나라 아동의 읽기 발달에 관한 연속체 연구가 적어 읽기 교육의 기반지식이 적음을 말하고 있다.

‘발달’의 개념 중 중요한 요소로 성숙과 학습을 들 수 있는데, 이성영(2008)은 읽기 발달에 있어서는 성숙인지 학습인지의 문제보다는 ‘이행’과 ‘확장’의 문제가 중요함을 말하였다. 읽기 능력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달했다는 것을 ‘읽기 능력의 범주가 확장된 것이며, 인지 용량의 주된 사용처가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발달의 과정도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복선적인 것으로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각각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발달하되, 특정 시점에서는 특정 요소가 두드러지게 발달한다고 본다. ‘이행’과 ‘확장’ 그리고 복선적인 발달의 관점을 갖게 되면 아동독자는 성인 독자에 비해 아직도 불완전하게 읽는 독자가 아닌 나름의 읽기 발달 단계에서 온전한 한 사람의 독자로서 서게 된다.

한편, 국내외의 읽기 발달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에 비해 국외의 읽기 발달 연구는 많은 편이다. 대부분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 발달 연구들인데, Early & Carlsen의 생일 케이크 이론,⁵⁾ Chall(1996),⁶⁾ Woods(1992)⁷⁾ 등이다. 국내 연구⁸⁾로는 크게 읽기 발달

5) 신현제 외(1996 : 58~60)를 이성영(2008)에서 재인용. 읽기 발달 단계를 출생—유치원, 유치원—초2, 초3—초6, 중—고등, 고등후반—대학, 성인기와 같이 6단계로 나누고 있다. 생일 케이크처럼 전점 폭이 좁아지면서 커져이 쌓이는 구조인데, 이것은 바로 이전 단계를 토대로 해서 다음 단계가 추가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6)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한 정전으로 꼽히는 것으로, stage 0~5까지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

7) 김동일 외(2006 : 428)에 읽기 능력 발달의 5개 단계를 간단하게 소개됨(이성영, 2008, p.53에서 재인용).

8) 노명환 · 이자숙(1999), 천경록(1999), 김봉순(2000), 한철우(2000), 윤영선 · 권순달(2001), 서홍옥(2002), 임시혁(2002), 신종호(2004), 임시혁(2006), 김동일 외(2006), 최영환(2007), 김재건(2007), 윤준채(2007a, 2007b), 이성영(2008), 엄훈(2009), 정옥년(2010), 최숙기(2010).

단계에 대한 연구(천경록 1999; 이성영 2008), 텍스트 인지도 발달의 양적 연구(김봉순, 2000), 읽기 태도의 발달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윤준채, 2007a), 초등학교 저학년의 읽기 발달 연구(서홍옥, 2002), 읽기의 인지적 영역의 발달(최영환, 2007), 독자의 정의적 영역 발달(정옥년, 2010), 중학생 독자의 읽기 발달 연구(최숙기, 2010) 등이 있다.

그 외 임시혁(2002), 임시혁(2006)은 교육학 일반에서 말하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s)을 활용하여 발달에 관한 연구를 텍스트 이해도의 발달에 대한 횡단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헌연구를 제외한 대부분 아동독자 관련 연구들은 양적 연구, 단기적인 횡단연구로서 대규모의 모집단을 통제, 실험하는 연구들이다. 과학적 실증주의의 배경을 가진 양적 연구는 결과 중심, 투입과 산출의 기계적 결과, 계량적 분석이 갖는 명료함, 전후 비교의 명쾌함, 일반화에 유리한 특징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윤준채·이형래(2007b)는 문식성 교육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메타 연구 방법을 들고, 양적 연구인 실험 연구 방법론을 연구 문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가 주된 관심을 갖는 읽기 교육의 문제에 따라 연구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 방법론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의 문제의식인 읽기 발달 관련 물음들은 읽기의 목적, 읽기의 방법, 읽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의 일반적 경향성보다는 각 아동의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변화들이다. 곧, 아동의 읽기 발달의 일반적인 경향보다는 개별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읽기 능력과 태도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양적 실험 연구와는 다른 설계를 요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읽기 관련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한다.

2.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가능성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 이외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는 방법은 각 발달단계의 연구대상 집단들을 동시에 관찰하는 횡단적 접근법(cross-sectional approach)과 동일한 연구대상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종단적 접근법(longitudinal approach)이 있다.⁹⁾ 임시혁(2002)에 따르면, 횡단적 접근법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광범위한 연령범위에 대한 발달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결과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대신 피할 수 없는 단점으로는 개인내 변화를 측정할 수 없고, 발달에 있어 개인간 차이가 시간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가정이 뒤따른다. 한 시점에서 어떤 대상의 측정값은 동일 발달 수준에 있는 다른 대상을 다른 시점에서 측정한 값과 일치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연령 집단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각 개별 대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내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읽기 교육 연구에서 이러한 횡단적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로 김봉순(2000)이 있다. 텍스트 구조의 인지도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학년의 다양하고 많은 학습자를 표집하여 각 집단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의 시간적 변화로 평균 성장곡선을 추정해 보거나, 각 연령과 학년 사이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 즉, 유의한 성장을 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텍스트구조의 이해력 발달은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거의 모든 학년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꾸준히 발달하는데, 발달의 상태는 관계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6학년 이후로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발달의 정도가 둔화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가 이루어질 당시는 국어교육 연구의 전통이 인문적 전통이 강하여 문헌 연구와 이론의 체계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발달에 관한 실제 연구라는 점, 텍스트 인지도가 발달하는 발달의 전환점(3, 6, 9, 11학년)을 찾아낸 점이 특징적이다.

또 다른 읽기 발달 연구로 최근의 학위논문으로서 최숙기(2010)를 들

9) 이종승(1984)을 임시혁(2002). p.295에서 재인용.

수 있다. 중학생의 읽기 능력 발달의 양상을 탐색하여 중학생의 읽기 교육의 원리를 세우기 위한 연구로서 중학생 280명, 초등학교 6학년 학생 88명, 고등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읽기 전략 등의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읽기 능력의 총체적인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여 읽기 발달이 어떤 특정 읽기 하위 기능이 각 발달 단계별로 새롭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달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달을 수행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등 학습자와 관련된 결론들은 어휘력에 있어 초등 6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 집단과의 차이가 유의한 것,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에 대해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학년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횡단적 접근의 양적 연구에서 평균치와 표준편차 등 수나 그래프로 표현한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개인이 성장해 감에 따라(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각기 ‘다른’ 연령 또는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의 ‘현재’ 상태를 모아 개별 아동의 발달의 향방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후 교수학습 모형이나 교재 구성에 아이디어를 주고, 학습자의 대체적인 발달의 위치를 가늠하게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달의 일반적 경향은 이 일반적 경향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의 현장 아동독자를 미숙한 독자로 만들 위험이 있다. 각 아동은 각자의 읽기 발달의 속도와 경향을 가지고 발달해 가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개인 내 차이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발달의 양적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객관적 데이터들은 각 특징의 ‘차이’와 ‘질’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이를 조용환(1999)의 표현을 빌어 바꾸어 말하자면, ‘질’은 “비교하기 이전의 상태, 또는 측정하기 이전의 상태 (...중략...) 개별적 사물의 고유한 속성이며, 그것을 그것답게 만드는 내재적 속성”이며, ‘양’은 “비교와 측정을 통해 인식되는 관계적 속성이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차적으로 부가된 속성이다. 그리고 수는 양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적으로 비교·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다.

발달 연구에서 횡단적 접근의 양적 연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양적 연구만으로는 각 학습자의 읽기 발달의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없고, 동일한 연구대상의 발달의 ‘질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발달’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역사성’, ‘특수성’을 담아 내기 어렵다는 말이다. 오히려 양적 연구에서 드러난 객관적 데이터는 질적 연구의 연구 질문에 대한 표준 자료가 되고, 질적 연구의 세세한 기술(description)은 양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기제로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의 목적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를 밝히거나 양적 연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달 연구에 있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는 후속 연구로 남긴다.

국어교육에서 질적 연구물 또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이후로 꾸준히 그 연구 결과들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 정현선(1998)은 미디어 교육의 예를 들어 국어교육에 질적 연구가 필요함을 말하였고, 정재찬(2001)은 사회과학으로서 국어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가능성 탐색을 하였다. 이정숙(2002)은 질적 연구의 의미를 국어 교과 연구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국어교육을 연구하기보다 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일반 교육학이나 문학, 국어학과 구별되는 지식의 상대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정혜승(2006)은 국어과 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탐구하였다. 현재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져온 질적 연구는 국어 수업 대화 특성 연구,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 연구,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양상 연구 등 주로 대화 분석 관련이거나 국어과 수업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향후 과제로서는 국어과 교육에서는 질적 연구의 역사가 일천하여 연구 주제나 방법의 다양화나 깊이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 방법의 정밀성과 함께 다양성이 추구되어야 하고, 연구를 정리하고 기술하는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실행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질적 연구 방법론에 관한 연구로는 옥현진(2010)을 들 수 있다.

국어교육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깊고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연구’ 두 학술지의 최근호부터 과거 순으로 소급하여 각 15편씩의 질적 연구물을 찾아 검토하여 연구 타당성의 제고 방법을 살폈다. 외국의 교수학습 방법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효과적인지 실제 경험 연구로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학계에서는 다양한 질적 연구 결과물들이 발표되고, 그 성과들이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어교육 연구에서 경험, 실천적 연구, 학습자를 주된 연구 참여자로 하는 질적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읽기 교육 연구 중에서 본격적인 질적 연구나 종단적 접근법을 사용한 논문은 찾기 힘들다. 읽기 교육에 적용할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 쓰인 논문도 흔치 않다. 더욱이 앞서 말한 것처럼 국어교육에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유용성, 방법에 대한 탐색은 있었으나 공부가 부족한 필자로서는 읽기 발달에 관한 질적 연구의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

몇 안 되는 읽기 교육 관련 질적 연구물로, 엄훈(2006)을 들 수 있다. 이는 읽기 부진 개선을 위한 보충학습반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행 연구의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로서의 교사 자신이 읽기 부진 학생을 보는 안목의 성장을 경험하고, 실행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한 질적 연구물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로서의 교사, 교수자로서의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그저 관찰하는 관찰자가 아닌 문제 해결의 주체였다는 점을 자각하게 된다. 연구 텍스트를 쓰는 단계에서 연쇄적인 성찰의 과정을 겪으면서 ‘연구자의 내적 확신을 동반한 의미의 성찰적 재구성’이 바로 ‘실행 연구의 내적 타당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엄훈(2009)은 질적 연구물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 능력 실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한 것이다. 이 글의 결론에서 저자는 읽기 능력 검사가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 글은 검사 결과에 대한 양적 접근을 통하여 저학년 아동들이 보이는 읽기 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과정과 결과에 터하여 개별

학생들에 대한 질적 접근을 통하여 학생 개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엄훈(2006)에 비하여 양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질적 연구의 목소리인 연구자의 ‘성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연구는 읽기 교육에서 질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연구자로서 교사가 학생들을 읽기 교수·학습 상황 또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읽기 관련 일상세계를 기술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읽기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개별 사례가 갖는 의미, 교사인 연구자가 학생들의 읽기 발달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 역사를 기록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질적 연구자의 노력, 시간 등의 한계를 이유로 대부분 횡단적 접근을 하고 있으나, 동일한 대상의 발달 변화의 특수한 양상들을 기술해 줌으로서 보편적인 타당성을 입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질적 연구로 읽기 교육을 연구하게 되면 양적 연구가 가진 한계인 발달의 연속, 불연속체로서의 독자,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독자를 드러내는 데는 부적절함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읽기 교육 연구에 또 다른 연구 영역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읽기 교육 실천연구자¹⁰⁾들이 읽기 교수·학습 상황에만 국한시켜 사고하기보다는 읽기의 주체로서의 아동독자에 대해 보다 넓고 큰 안목을 갖게 해 줄 수 있다. 교수·학습 상황에만 매몰되어 아동독자를 관찰할 경우 특정한 읽기 교수 처치의 효과와 결과에만 주목할 가능성이 커져 아동독자를 둘러싼 복잡한 맥락 요인(아동독자의 발달 상황, 읽기 과정의 상황, 학교 이외의 읽기 상황 변인)을 간과할 수 있다.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사고 구술(think-aloud)을 활용한 아동독자의 읽기 발달 연구(가제)’에서도 사고 구술법을 읽기 교수학습의 수단이나 처치가 아닌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들여다보는 관찰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10) 이 말은 일반적인 ‘연구자’라는 말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읽기를 가르치면서(실천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의 교사’, ‘교사 연구자’를 말한다.

Ⅲ.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의미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읽기 발달에 관한 연구자의 주요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관찰과 체험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론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한 (정확하게 말해 애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연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한다.

조용환(1999)에 의하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전제를 형성하는 기본적 신념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 구분은 연구 기법(research methodology)이 아닌 연구논리(research logic)의 문제라고 하였다. 구성주의, 현상학, 해석주의라는 패러다임의 기반을 가진 질적 연구는 이전의 과학적 실증주의의 양적 연구에 대한 대안적 연구 방법론을 가졌다. 대안적 연구 방법론을 가졌다는 것은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양적 연구로는 해결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연구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양적 연구는 기존의 학문세계에서 연구자가 선택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이론의 실제 적합성(relevance of the theory in reality)’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므로 ‘위에서 밑으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반면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경험하는 ‘실제의 이론적 해석(interpretation of the reality in theory)’을 시도한다(조용환, 1999).¹¹⁾

그러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절차나 기법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요소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의존적인 측면도 있다. 기법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 연구가 다른 연구의 논리를 공유할 수

11) 조용환(1999)은 ‘이론의 실제 적합성’과 ‘실제의 이론적 해석’이라는 두 표현을 고안하였다. 그에 의하면 ‘the reality’라는 용어를 양적 연구의 맥락에서는 ‘실제’로 표현하고 질적 연구의 맥락에서는 ‘실제’로 달리 표현하였는데, 그 이유는 질적 연구에서는 보편적 실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자들은 추상적 실재에 관한 선부른 단정보다 구체적 실재의 치밀한 관찰에 더 관심을 가진다.

는 없다는 것이다. 자연 과학 중심의 양적 연구와 인문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과학 연구는 근본적으로 사물과 인간을 보는 ‘눈’이 다르다.

앞서 말한 정현선(1998)에서는 ‘눈’의 차이를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피셔(R.A.Fisher)의 1935년 연구를 들어 말하고 있다. 홉킨스(Hopkins, 1993)¹²⁾는 ‘농작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구와의 차이점을 첫째, 교육적 상황에서는 임의의 샘플을 추출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모든 학생이 개별자로서 존중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농업 생산과 달리 교육에서는 실제의 학교와 수업 상황에 작용하는 다양한 컨텍스트의 변인이 학생들의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벼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우나,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수업인가, 혹은 어떤 학교가 성공적인 학교인가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목적에 대해 김영천(2006)은 의미와 이해, 일상적 세계의 기술, 특정한 사례에 대한 특별한 관심,¹³⁾ 발견과 이론화, 새로운 통찰력의 제공(낯설게 하기)라고 하였다.¹⁴⁾ 질적 연구에 대한 위와 같은 관점의 바탕 위에 연구자의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질적 읽기 발달 연구의 개요를 말하자면, 연구자는 지난 2008년 2학기에 3학년 세 명, 5학년 세 명, 총 여섯 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기술을 활용한 읽기 과정 평가’를 실시한 바

12) 홉킨스(David Hopkins)의 말을 정현선(1998 : 262)에서 재인용.

13) Eisner(1992)는 교육현상은 단순한 한두 개의 변인으로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관계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의 이해는 곧바로 참여자의 일상세계의 심층적인 기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 연구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연구관심은 학교의 일상적 세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Maxwell, 1996. p.17을 김영천, 2006에서 재인용).

14) Lincoln과 Guba(1981)에 의하면 질적 연구가 대단위의 모집단을 연구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겠지만 또는 질적 연구가 어떠한 명확한 진리나 명제 또는 가설을 연구자들 또는 독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편하고 있으나 정말로 귀중한 자료들, 그리고 연구주제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새롭게 연구해야 할 것 인지를 깨우쳐 준다(김영천, 2006. pp.77~108에서 재인용).

있다(권순희 외, 2009). 이후 이루어진 연구는 동일한 연구 참여자(participant)들을 2010년 1학기까지 추적 관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 3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읽기 발달의 과정을 살피는 종단 연구로서 궁극적으로는 읽기 전략과 읽기 태도 발달의 관계적 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주된 읽기 텍스트는 각 학년의 읽기 교과서에 실린 설명적 텍스트로 한정하였고, 학기당 5~8회씩의 관찰을 진행하였다.

연구 윤리적인 면과 개인정보 등의 유출을 우려하여 평가와 관찰 기록은 실명을 밝히지 않고 ‘3a’, ‘5C’ 등으로 기호화하여 기록하였다. 녹음 및 기록물을 분석할 때는 각 학년의 수준에 따라 ‘가명(학년수준)’인 ‘민서(3a)’, ‘서연(3b)’, ‘수빈(3c)’, ‘미경(5A)’, ‘은정(5B)’, ‘선주(5C)’¹⁵⁾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읽기 능력의 발달양상을 사고 구술(think-aloud)법으로 관찰하고, 읽기 면담과 질적 내러티브 탐구 중심으로 읽기 태도의 발달을 관찰하였다.

1. 인간 이해로서의 아동독자 연구의 의미

질적 읽기 발달 연구에서 아동독자는 더 이상 양적 연구에서처럼 실험 대상, 피실험자, 연구 대상이 아니다. 아동독자는 연구자와 함께 하나의 연구에 참여하는 주체이며, 개별 인격체로 존중되고, 그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로 읽기 발달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연구에서 두 가지의 큰 축인 ‘읽기 능력(인지적 전략)’과 ‘읽기 태도’ 중 특히 사고 구술법으로 관찰한 읽기 과정과 이후 읽기 면담 자료는 각 아동독자의 읽기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으로서 의의가 있다. 다음은 민서(3a)가 2008년 2학기부터 2010년 1학기까지 사고 구술한 내용 중에

15) ‘a, b, c’는 3학년 아동독자의 상, 중, 하 수준을, ‘A,B,C’는 5학년 아동독자의 상,중,하 수준 표식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별칭은 ‘민서(3a) → 민서(4a) → 민서(4a’)(2학기) → 민서(5a)’로 달라진다.

서 대의 파악형 구술들이다.

〈2008-2학기〉

1. ㄱ. 읽은 글 : 글을 읽고,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봅시다.
- ㄴ. 사고구술 : 음... 나도 문단의 중심내용을 찾아볼까?

〈2009-1학기〉

2. ㄱ. 읽은 글 : (글 전체를 읽고 구술한 후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다가) 소금은 지구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어진다.
- ㄴ. 사고 구술 : 소금을 얻는 방법에는 무엇 무엇이 있었냐면, 암염덩어리... 천일제염법, 전기의 힘으로, 공장에서도...이런 방법이 있었다.

〈2009-2학기〉

3. ㄱ. 읽은 글 : 방패연의 경우, 종이를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2대 3이 되도록 직사각형으로 자른 다음, 그 종이를 접어서 한가운데에 연 길이의 1/3 정도의 지름으로 둥근 구멍을 낸다.
- ㄴ. 사고구술 : 음... 만들어 본적이 있어. (문단 처음부분부터 다시 읽고) 연 만드는 방법!

〈2010-1학기〉

4. ㄱ. 읽은 글 : 이제부터 주위의 사물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 ㄴ. 사고구술 : 힘들겠다...(처음부터 다시 읽고) 밤하늘색이 노을색이라는 것이 아니라... 검은 색도 아니라... 짙은 파란색이라고 알게 되었구나... 주인공이...직접 보고 나니까... 앞으로는 사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다고 하였구나.

1ㄴ은 3학년 2학기에 구술한 내용으로 교과서의 물음을 읽고 나서 중심내용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실제 글을 읽는 동안에는 각 문단의 첫 글자 앞에 문단의 순번을 붙이는 것 외에 문단의 중심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2ㄴ은 2009년 1학기의 대의 파악형 구술로서, 글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는 전략을 시도하고, 나름대로의 요약을 시도한 흔적이 보여 대의 파악형 사고가 진일보한 것

으로 보인다.

3나과 4나은 각각 2009년 2학기과 2010년 1학기의 대의 파악형 구술로 문단의 요지를 찾거나 짧은 글 전체의 주제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대의를 파악하기 위해 문단단위, 텍스트 전체 단위로 다시 읽기를 시도한 것은 이 학습자의 읽기 능력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예이다.

연구자는 읽기와 사고 구술 녹음 활동 중에 연구자는 뒤편에 서서 살펴보다가 특징적인 양상이 발견되거나, 학습자가 질문을 한 경우에 읽기 면담으로 이어졌는데, 미경(6A)이의 읽기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 : 이거 읽어보니까 어땠어? 이거 4학년 때 배운 건데.

미경(6A) : 기억은 안나요.

연구자 : 기억은 안나?

미경(6A) : 네.

연구자 : 기억은 안 나지만...4학년 때 배운 건데..지금 6학년 때 배우는 글하고 비교하면 어때?

미경(6A) : 훨씬 쉬워요.

연구자 : 어떤 점이 쉬워?

미경(6A) : 내용이 간결하고..... 중요한 것만 들어있어서요. 그 내용 요약하기도 편하고..

연구자 : 응..요약하기도 편하고..그럼, 이거 다 요약하면 무슨 말이겠어?

미경(6A) : 우리의 질그릇은.....좋다..(웃음)

연구자 : 어떤 점에서?

미경(6A) : 조상들의 슬기도 담겨있고... 현대 그릇보다...현대 그릇의 단점을 채워줄 수 있다.

연구자 : 음... 또? 만약에 6학년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다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미경(6A) : 질그릇의 종류하고 쓰임새 이런 것이 더 자세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렇구나! 수고했어!

이 중 짧은 글씨로 쓰인 미경(6A)이의 말은 자신이 읽은 글에 대한 평가와 요약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런 내용은 지필평가 문항이나 일반 검사

도구로 검사한 결과만 가지고는 살필 수 없는 아동독자의 사고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처럼 아동독자의 구술 자료나 면담자료는 읽기 교육 이론에서 다 담을 수 없는 ‘지금, 여기’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읽기 발달의 변화를 생생한 학습자의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다 이것은 발달해가는 학습자의 특성에 부합하며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의 아동독자 연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2. 읽기 부진 등 소외된 학습자의 사고 과정 관찰의 의미

이 연구에서 상중하 수준으로 판별된 학습자 중 천경록(1999)의 읽기 발달 단계에서 말하는 읽기 부진아는 수빈(4c)이다. 초기 사고 구술 내용 중에서는 텍스트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거나, 텍스트와는 무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거나, 모르는 어휘를 문맥에 의해 유추할 때 보이는 오류 등은 읽기 부진아의 사고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5. ㄱ. 읽은 글 : 물독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ㄴ. 사고 구술 : 물독? 물에도 독이 있나?

6. ㄱ. 읽은 글 : (글을 다 읽은 후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읽어가면서)

ㄴ. 사고 구술 : 진짜 신기하다. ‘증발’은 원지 않지만……. ‘염장’은 원지 모르고……. ‘싱싱하게도’는 알아도 ‘변색’은 모른다.

7. ㄱ. 읽은 글 : 길가의 개나리 울타리와 썩 잘 어울리는 안내판의 화살표가 선명하게 보였다.

ㄴ. 사고 구술 : 무슨 ‘색’일까?

5ㄴ을 보면 수빈(4c)이는 다른 4학년 아동독자들이 쉽게 파악한 ‘물독’

이라는 단어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물독’은 ‘물을 담은 항아리’인데 이 학습자는 ‘물’과 ‘독(毒)’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이다. 실제 이 텍스트에서 의도하는 것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질그릇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오독(誤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빈(4c)이가 보인 2008년의 어휘와 세부내용 파악형 구술은 대부분 ‘뭐지?’, ‘**은 뭘까?’, ‘이건 내가 모르는데……’ 등이었다. 자산모델¹⁶⁾의 관점으로 2008년과 비교할 때 단어를 파악하려고 한 단어 안에 두 개의 명사가 들어간 것을 간파한 것은 어휘 파악 전략이 진일보한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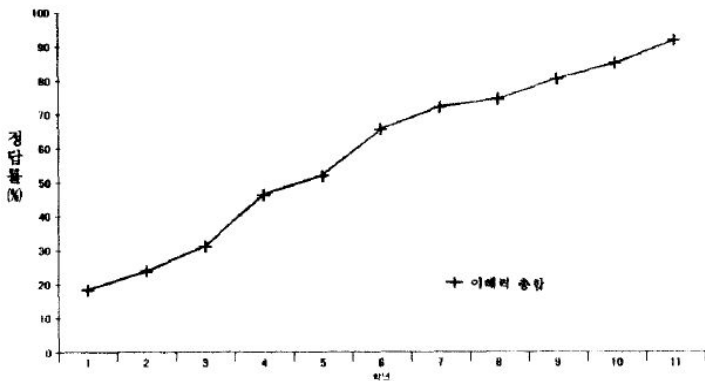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6ㄴ에서 보듯이 수빈(4c)이는 적어도 연구에 참여한 이래 최초로 텍스트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읽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다시 점검하는 구술을 했다. 이것은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초인지의 발달 양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구술 후에 수빈(4c)이는 연구자에게 “선생님 교실에 있는 사전 봐도 되요?”라고 물으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단어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7ㄴ은 텍스트에 드러난 특정 단어에 집중하여 그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예이다. ‘씩’이라는 부사는 사실 이 문장 전체로 볼 때 없어도 그 뜻이 통하는 문장 성분이다. 더구나 이 학생과 읽기 면담을 할 때 이전에 이 단어를 들어보았느냐는 질문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학생은 문장의 의미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이 생소한 단어에 집중하여 전체 의미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연구자가 ‘씩’을 설명해주고 나자 그제야 들어본 적이 있다면서 활용 예로 든 것이 ‘씩 물러나라!’라는 텔레비전 사극에서 본 말을 생각해내었다.

16) 자산 모델(asset model)은 학습자의 성장을 학년 초 학습 시발 지점에서 그 학습자가 어떠했었는가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고, 발달 정도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반대로 결손 모델(deficit model)에서는 수행을 잘 하고 못하고에 대한 비교 기준은 해당 학년의 읽기 자료인데, 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결손 모델에서는 ‘해야만 한다.’와 ‘할 수 없다.’에 초점을 맞추지만, 자산 모델은 ‘할 수 있다.’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Mary Jett-Simpson · Lauren Leslie 저, 원진숙 역, 2004, p.103.)

3. 개인 내적 읽기 능력 변화 관찰의 의미

김봉순(2000)에 의하면,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인지도 발달에서 발달의 전환점이 되는 학년으로 3, 6, 9, 11학년을 들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관계 유형별 텍스트 이해도의 발달 정도를 종합한 텍스트 구조 이해력의 발달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점차적이고 지속적인 발달의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발달의 정도(기울기)는 6학년까지는 크다가 7학년부터는 작아진다. 6학년을 전환점으로 그 이전 단계에서는 비교적 큰 변화(발달)를 보이다가 6학년 이후로는 변화의 정도(발달의 속도)가 적어지고 이해의 수준은 높아져서 발달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발달의 전환점이 되는 학년으로 주목한 6학년은 평균값의 그래프로 발달 곡선이 완만해지는 지점을 이루는 것으로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텍스트구조의 이해력 발달 그래프〉¹⁷⁾

그러나 이 그래프를 이룬 수많은 아동들의 개별적 읽기 발달 상황 모두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개별 아동은 각자의 읽기 발달 곡선을 가질

17) 김봉순(2000). p.52.

수 있고, 읽기를 하는 상황맥락에 따라 또 검사 실행 맥락에 따라 언제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질적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더구나 ‘발달’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때 동시에 서로 다른 개별 학습자의 발달 상황을 합하여 발달의 방향을 추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읽기 맥락, 읽기 학습 맥락을 외면하는 일이 된다.

다음은 은정(5B)이의 2008년 2학기부터 2010년 1학기까지의 구술 내용 중 읽기 능력에 있어 부정적 발달을 보이는 사례들이다.

2008년 읽기 과정 평가의 초기에 실시한 자유 대화에서 은정(5B)이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부모의 읽기 흥미가 높은 편이었다. 주된 사고 구술의 형태가 ‘왜?’, ‘정말로?’,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 등 자신의 배경지식에 비추어 글쓴이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읽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 6학년 1학기에 은정(6B)이의 읽기 전략 발달은 주로 비판적 추론의 구술에서 두드러지는데,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8. ㄱ. 읽은 글 : 이 밖에도 로봇은 의료, 우주 개발, 예술 등의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다.

ㄴ. 사고 구술 : 그림을 잘 그리는 로봇과 못 그리는 로봇이 있으면 화가 로봇이라고 하겠지?

9. ㄱ. 읽은 글 : ‘지진을 일으키는 용’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ㄴ. 사고 구술 : 여기 82쪽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믿겨지지가 않아.

8ㄴ은 텍스트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비명시적인 내용을 추론하는 과정을 보이며, 9ㄴ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구술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에 보이는 2008년의 추론과 평가 구술과는 다른 양상이다.

10. ㄱ. 읽은 글 : 아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우주와 닮은 것은 우리가 우주의 일부분이라서 그런가 보다.

ㄴ. 사고 구술 : 이런 말은 꼭 시처럼 생겼네. (시로 쓴다면) ‘우주나 사람이나/ 닮은 곳이 많네. / 우주 안에 사람 있네, (사람 안에 우주 있고.)’¹⁸⁾

10ㄴ은 2008년 실시한 읽기 과정 평가 중에서 익숙하지 않은 텍스트를 읽고 한 구술이다. 구술한 내용으로 보아 추론이나 평가적 구술이 2008년보다 질적으로는 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텍스트가 조금 길어지거나, 모르는 단어가 많을 경우 구술의 빈도가 줄어들거나, ‘어렵다’, ‘읽기 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은정(6B)이는 대체로 부정적인 읽기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실험 시간에 지각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녹음하기를 꺼려하는 등의 행동이었다.

은정(6B)이의 일종의 퇴행적 구술과 함께 부정적인 사례로 판단한 것은 텍스트의 전체적인 주제와 관계없는 배경지식의 간섭현상을 보인 구술이었다.

11. ㄱ. 읽은 글 : 육식 공룡이 나타나면 재빨리 줄행랑을 놓았다. 잡히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ㄴ. 사고 구술 : 나도 언니한테 잡히면 살아남을 수 없어.
12. ㄱ. 읽은 글 : 지구에서 사라진 뒤에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공룡의 세계.
 ㄴ. 사고 구술 : 나도 관심을 받고 싶어.
13. ㄱ. 읽은 글 : 그러나 이 시간에도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도 발표되고 있다.
 ㄴ. 사고 구술 : **찰흙으로 공룡 발자국 만들어 본적 있어.**

위 11ㄴ~13ㄴ번의 구술은 모두 실제 텍스트에서 의도하지 않은 자선만의 배경지식을 끌어와 구술한 사례이다. 더구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구술은 모두 ‘~하고 있어.’, ‘~한데…….’ 등의 구어형이다.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대화하듯이 구술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¹⁹⁾

18) () 부분은 연구자가 학생의 사고 구술을 이해하거나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한 말이다.

19) 은정(6B)이의 부정적 발달의 사례는 임미성(2010 : 431)에도 나와 있다. 이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이전 연구가 이런 부정적 발달 사례가 ‘왜’ 일어나는지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은정이 개인 내적인 부정적 발달의 과정을 보이기 위한 사례로 제

또한 흥미로운 것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텍스트를 쓴 사람,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누군가와 ‘말을 하듯이’ 읽는 양상을 보였다. 16년의 경우는 ‘말하기와 듣기의 특성’이라는 텍스트의 전반부에 나온 글인데, ‘국어가 싫다’는 정서적 반응을 보였다. 이 부정적인 정서는 텍스트 전체를 읽는 동안 계속해서 ‘말하기가 하루 중에 제일 많다고? 쓰기는? 문자 보내기는 쓰기 아닌가?’ 등의 창의적이지만 부정적 구술이 있었다. 게다가 텍스트를 다 읽고 나서 필자 이름을 보고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라고 하였다. 이것은 한 학년 위 단계인 텍스트를 읽으면서 느낀 필자가 글을 쓴 태도, 텍스트에 나오는 생소한 어휘들 때문에 텍스트 읽기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양적 연구에서 그래프로 표현한 일반적 발달 곡선에서 6학년 부터 발달이 완만해지는 부분 중에서 개별 학습자의 읽기 능력이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여서 나빠지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여 줄 수 있다.

4. 읽기 교육 실천 연구자인 교사의 성찰적 반추의 의미

필자는 진행하고 있는 귀납적 질적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성찰적 인식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내적 질문을 되풀이하였다. 그것은 이 연구의 근본 질문인 ‘글을 읽을 때 아동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동의 읽기 능력과 태도 발달’에 관한 것 외에도 ‘이 연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연구 설계와 방법으로 계속 관찰했을 때 과연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연구의 결론이 뻔하게 나지는 않을까’ 등이었다. 연구자의 끊임없는 성찰적 되묻기와 반추는 읽기 교육 관련 학자들과의 대화,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학부모와의 대화 그리고 연구자의 성찰일기를 통해 계속됐다.

다음은 연구자의 연구 초기의 성찰 일기와 연구 중반, 후반의 성찰 일기 일부이다.

○○○교수님의 읽기 교육 논문을 읽었다. 참으로 명쾌하고 배울 점이 많다. 공부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인 듯. 글을 쓴 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시시콜콜한 연구가 별것이 아니라고 훈계를 듣는 것 같다. 주눅이 든다. 저 많은 원서는 언제 다 읽나……. (…중략…) 하지만……. 이론이 약한 내가 할 수 있는 연구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언가를 적용하고 살피는 것. 그것은… (…중략…) 교사인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10월 3일 성찰일기 중에서)

시도 아닌 논문을 읽으며 울다. 네 학교 이야기를 읽다 보니 나를 보는 것 같다. 학교는 언제나 바쁘고 나는 아이들 앞에 웃지 않는 얼굴로 서 있다. 국어 수업을 재미있게 하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놀면서 수업하던 때가 언제던가. 질적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는다. 이런 나를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아이들이 읽으면서 틀리는 것을 진지하게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내 연구의 의미.

(2009년 9월 8일 성찰일기)

질적 연구=>질적 교육. 질적 연구의 궁극은 작고 소외된 것에 숫자로 재단된 건조한 데이터가 아닌 사람에 대한 생각. 낱낱이 흩어진 개개인의 아프고 말 못할 이야기를 대신해 줌. 질적 연구와 질적 교육은 하나다. 나의 질적 교육은 어떠한가. 나의 질적 연구는 어떠한가. 둘인가. 하나인가. 작고 낮은 것 느린 것. 느리게 발달해가는 것들에 대해 불쌍한 어린 것들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로 대했는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 연구는 어떤 의미인가. ○○이는 아까 짜장면을 먹으면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시험만 잘 보라고 하면서 때린다고 투덜거렸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연구가 끝난 이 시점에 그 아이의 국어 읽기 태도의 어떠한 점을 말하는 것인가. ○○, ○○이는 이 연구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읽기가 좋아서일까 아닐까?

(2010년 9월 29일 성찰일기 중)

연구자의 내적 물음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성찰일기들이다. 질적 연구로 쓰인 논문은 대부분 너무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들을 나열했다거나, 신문의 칼럼이나 쓰일만하다는 질타를 듣는다. 하지만 질적 연구이기에 가능한 이런 성찰 일기의 솔직한 표현들은 읽기 교육 연구자와 실천자로서 교사인 실천 연구자들의 연구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양적 연구에서 과감히 배제해야 할 연구자 효과는 질적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서 연구 전체를 ‘인간됨’의 이해라는 스크린에 투영하게 된다.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 면에서 보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자료 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 담임교사의 면담 자료, 학부모의 면담 자료 등이 그것이다. 다음은 3c의 4학년 당시 담임교사의 면담 중 일부이다.

○○는 요즘 도서관에 자주 가요.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에는 책을 볼 때 그냥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요즘은 뭐랄까. 책에 좀 빠진다고 할까. 얹튼 꽤 진지하게 봐요. 내용을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많지만요. 지난주엔가 체육대회 던지기 선수로 나갈 때도 무슨 책을 가져 가길래 물어보니까 던지고 나서 시간 날때 본다고 했어요. 아는 것은 별로 없어도 책은 얹튼 자주 들고 다녀요. (…생략…)

(2009년 4월 30일 담임교사 면담 중)

담임교사의 면담내용은 읽기 부진인 수빈(3c)이의 읽기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알게 하고, 이것은 읽기 태도 검사 결과 드러난 4.0→4.8²⁰⁾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학부모 연수 후 학교장에게 보낸 수빈(3c)이 어머니의 장문의 문자 메시지에서 이런 태도 변화가 드러난다.

교장 선생님 오늘 안도현 시인을 직접 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우리 ○○는 교장 선생님 품에 안겨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도 오늘 참 가봤는데 정말

20) 정혜승(2006)의 자료를 활용한 읽기 태도 검사지 활용. 읽기의 인지, 정의, 행동적 요인의 태도 검사 결과의 평균치.

좋아요. ○○이가 맨날 간대요. 선생님들도 잘 가르쳐주고 **에게 책을 잘 읽으
라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초등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²¹⁾
 (2010년 10월 27일 학부모연수 후 ○○ 어머니의 문자메시지)

이러한 학부모의 태도는 이후 수빈(3c)이의 읽기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자의 성찰적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구술 녹음을 할 때 자꾸 틀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아이라고 여겼던 점을 반성하게 된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읽기 발달 연구에 있어 활용하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의미에 대한 탐색에 있었다. 연구자가 읽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여기는 ‘독자’요인에 주목하여 진행하고 있는 읽기 발달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살핀 메타 연구이다.

읽기 발달 연구에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연구 전체에서 갖는 의미는 첫째, 인간 이해로서의 아동독자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읽기 발달의 과정을 학습자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읽기 부진 등 소외된 학습자의 사고 과정 관찰의 의미를 가진다. 읽기 부진자인 아동독자의 사고 과정을 살피면서 부진의 원인을 밝히고, 읽기 교수학습 교재 개발의 원리 도출 등에 유용한 기반 지식이 될 수 있다.

셋째, 개인 내적 읽기 능력 변화를 관찰이 가능하다. 6명의 아동독자

21) 시인을 초청하여 학부모 독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학부모 연수 후 학교장의 감사 인사 문자에 대한 답신으로 학교장에게 온 메시지를 연구자에게 보여주어 전사하여 옮김.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연구자가 조정한 것임.

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 발달하는 변화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읽기 능력이 각 개별 학습자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좀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

넷째, 읽기 교육 실천 연구자인 교사의 성찰적 반추의 의미를 가진다. 연구자의 성찰 일기와 현장 텍스트를 근거로 성찰적 반추를 살피고, 이후 읽기 교육의 원리와 읽기 교재 구성의 원리를 끌어낼 수 있다.

요컨대, 읽기 발달 연구에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이해, 생태학적 읽기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 읽기 교사 자신이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읽기 교육의 면모를 가능케 한다. 이것은 읽기 교수학습 개선과 읽기 교재의 수정과 재구성에 이론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읽기 발달에 질적 연구를 적용할 경우의 한계로는 연구자의 시간적, 물리적 노력과 인내심이 요구되고, 종단 연구(연대기적 연구)의 경우는 대상의 동질성을 담보하지만 제한된 수의 대상만을 관찰하여 일반적 경향성을 확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한 두 마디로 일별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이론이 현장에 적용되는 ‘위에서 밑으로’의 연구와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밑에서 위로’의 연구 모두 양방향의 상호보완적 관점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각 연구 방법론을 탄탄히 쌓아 나가 이론과 실천이 상생하는, 이론으로 실천을 풍부하게 하고, 실천으로 이론을 공고히 하는 읽기 교육의 면모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1. 2. 28. 투고되었으며, 2011. 3.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순희 외(2009), 『인간과 잣대』, 역락. 101~145.
- 김영천(2006), 『질적 연구 방법론』, 문음사.
- 김봉순(2000), “학습자의 텍스트구조에 대한 인지도 발달 연구—초·중·고 11 개 학년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102, 한국어교육학회. 27~84.
- 김동일 외(2006), “초등학교 저학년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아동의 읽기 유창성 발달 특성 분석”, 『교육심리연구』 20, 한국교육심리학회. 425~442.
- 노명완·이차숙(1999), “문식성의 개념, 발달,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관한 연구”, 『교과교육관련 자유연구』, 한국교원대 교과교육 공동연구소. 1~133.
- 배은주(2008), “질적 연구의 최근 동향과 그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1, 한국교육인류학회. 1~27.
- 서혁·서수현(2007), “읽기능력 검사 개발 연구(1)—읽기능력 검사의 하위 영역 설정 연구”,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학회. 213~240.
- 서홍욱(2002),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읽기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림 외 저(2006),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출판부.
- 엄 훈(2006), “읽기 부진 개선을 위한 보충학습반 운영의 경험”, 『교육인류학연구』 9, 한국교육인류학회. 57~97.
- 엄 훈(2009),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 능력 실태에 대한 연구”, 『청주교대 논문집』 45. 163~176.
- 옥현진(2010), “국어교육 질적 연구 동향에 대한 일고찰”, 『국어교육』 132, 한국어교육학회. 249~268.
- 윤영선·권순달(2001), “발달단계에 따른 읽기지도모형 개발과 모형의 타당도 연구”, 『교육평가연구』 13(1), 한국교육평가학회. 199~222.
- 윤준채(2007a),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 발달에 관한 국제 비교-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485~517.
- 윤준채(2007b), “독자의 정서적 영역 발달”, 『독서연구』 17, 한국독서학회. 229~262.
- 윤준채·이형래(2007a),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 발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0, 국어교육학회. 161~190.
- 윤준채·이형래(2007b), “문식성 교육 연구 방법론—실험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357~378.
- 윤희원(2001), “국어교육학 발전을 위한 연구방법론 탐색을 위하여—국어교육학 연구

- 방법의 현황과 문제”, 『국어교육학 연구』 12, 국어교육학회. 1~15.
- 이도영(2007), “읽기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 방법론”, 『독서연구』 17, 한국독서학회. 181~206.
- 이성영(2008),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27, 한국어교육학회. 51~80.
- 이성영(2009), “읽기 교육에서 태도의 문제-읽기 태도의 교육 가능성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21, 한국독서학회. 285~318.
- 이정숙(2002), “교과교육을 위한 질적 연구의 방향-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권 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7~38.
- 이지영(2010), “아동독자의 독서 활동 연구-대화 일지 소통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독서학회 25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독서학회. 1~24.
- 이지영(2011), “아동독자의 이야기책 읽기 반응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미성(2010), “사고구술을 활용한 읽기 전략과 태도의 발달 양상 탐색”, 『국어교육학 연구』 37, 국어교육학회. 419~446.
- 임시혁(2002), “다층모형을 이용한 발달연구의 횡단적 접근”, 『교육평가연구』 15, 한국교육평가학회. 295~315.
- 임시혁(2006), “발달연구의 횡단적 접근법에서 평균성장형태의 탐색”, 『교육평가연구』 19, 한국교육평가학회. 101~120.
- 정옥년(2007), “독서의 정의적 영역과 독자 발달”, 『독서연구』 17, 한국독서학회. 139~180.
- 정옥년(2010), “평생학습자로서 독자의 발달”, 『한국독서학회 제25회 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독서학회. 53~80.
- 정재찬(2001), “국어교육 현상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접근-질적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51~91.
- 정현선(1998), “인문학으로서의 국어국문학/사회과학으로서의 국어교육 연구 : 미디어 교육 연구의 예를 통한 국어교육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5, 국어교육학회. 253~273.
- 정혜승(2006), “국어과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교대 교육논총』 26, 경인교대. 201~223.
- 정혜승(2007), “읽기 태도 평가를 위한 점검표(checklists) 개발 연구-학생과 교사의 읽기 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71~291.
- 조용환(1999),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13~36.
- 조용환(2004), “질적 연구와 질적 교육”, 『교육 인류학 연구』 7, 한국교육인류학회.

57~77.

- 천경록(1999), “읽기의 개념과 읽기 능력의 발달 단계”, 『청람어문학』 21집, 청람어문학회. 265~282.
- 천경록(2002), “읽기 교육 방법과 사고기술”,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1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23.
- 천경록(2004), “사고기술 활동이 초등학생의 독해에 미치는 효과”, 『국어교육학연구』 19, 국어교육학회. 513~544.
- 최숙기(2010), “중학생의 읽기 능력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환(2007), “독서의 인지적 영역 발달과 사회적 관점”, 『독서연구』 17, 한국독서학회. 39~62.
- 한국어문교육연구소·국어과교육학습연구소(2006), 『독서교육사전』, 교학사.
- 한철우(2000), “독서 발달 단계의 특성과 독서지도”, 『한국교원대 교수논총』 16, 한국교원대학교. 48~67.
- 한철우·정옥년(2005), “독서 교육의 발전 방향”, 『국어교육론』 2, 한국어교육학회. 433~456.
- Chall, J. S.(1996),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2nd)*, Fort Worth : Harcourt Brace Publishers, USA.
- D. Jean Clandinin·F. Michal Connelly(2001), *Narrative Inquiry—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외(2007) 역, 내러티브 탐구-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교육과학사.
- Herbert P. Ginsburg & Sylvia Oppen(1988), *Piaget's theo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 김정민 역(2006),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학지사.
- Mary Gauvain & Micaela Cole (2005). *Reading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4th Ed.)*. New York: Worth Publishers.
- Millie Almy & Celia Genishi(1979), *Ways of Studying Children*, 임재택·황혜의 역(1994), 「아동연구의 질적 접근」, 교육과학사.

<초록>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의미

임미성

이 연구의 목적은 읽기 교육 연구에 있어 최근 연구 경향인 질적 연구 방법론의 의미에 대한 탐색에 있다. 연구자가 ‘독자’ 요인에 주목하여 진행하고 있는 읽기 발달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살핀 메타 연구이다.

읽기 발달 연구에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연구 전체에서 갖는 의미는 첫째, 인간 이해로서의 아동독자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읽기 발달의 과정을 학습자 자신의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읽기 부진 등 소외된 학습자의 사고 과정 관찰의 의미를 가진다. 읽기 부진자인 아동독자의 사고 과정을 살피면서 부진의 원인을 밝히고, 읽기 교수학습의 원리 도출 등에 유용한 기반 지식이 될 수 있다.

셋째, 개인 내적 읽기 능력 변화를 관찰이 가능하다. 6명의 아동독자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 발달하는 변화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읽기 능력이 각 개별 학습자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좀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

넷째, 읽기 교육 실천 연구자인 교사의 성찰적 반추의 의미를 가진다. 연구자의 성찰 일기와 현장 텍스트를 질적으로 살피고, 이후 읽기 교육의 원리와 읽기 교재 구성의 원리를 끌어낼 수 있다.

요컨대, 읽기 발달 연구에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이해, 생태학적 읽기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 읽기 교사 자신이 참된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읽기 교육의 면모를 가능케 한다. 이것은 읽기 교수학습 개선과 읽기 교재의 수정과 재구성에 이론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핵심어】 읽기 발달, 질적 중단 연구, 사고 기술, 읽기 능력, 읽기 태도

<Abstract>

The Meaning of Qualitative Research on the Reading Development Study

Lim, Mi-s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or the meaning of Qualitative Research on the reading development study. It is a meta study for a reading development method to be interested in child-reader.

The signification for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on the reading development study is to let himself hear a voice of a learner during the process of reading development when we study for child reader as a understanding humans.

Moreover,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reading development study is a meaning method for the observation on the process of thinking of children with underachievement in reading. It can be a valuable basement knowledge for the theory deduction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reading.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reading development study is possible to survey a individual internal variation of reading ability. This study surveyed a individual internal variation of reading ability with the lapse of time on six child-readers.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reading development study is the meaning for self reflection of a teacher as a researcher of reading education. As we practice a qualitative research for the self reflection diary and the field text of a researcher, we can search a theory of reading education and reading text structure.

In short,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reading development study is possible to prepare a beginning of a human comprehension and

ecological reading education, perceive a signification of reading education. this study can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reading education method and the restruction of reading text.

【Key words】 reading development,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think-aloud, reading ability, reading attitude